

마음 다루기 Transurfing

트랜서핑-꿈의 공간

| 바딤 젤란드 | 박인수'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마음은 과거의 벽돌로 지어진 집이지만, 언제든지 그 벽돌로 새로운 형태로 지을 수 있고 또 가능태 공간과 접속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편집자 주).



보 호구역 감시원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자각몽 속에서는 왜 무엇이든지 가능한가? 그리고 꿈은 왜 마치 현실처럼 그토록 생생하게 보이는가?

무의식적인 꿈에서나 자각몽에서나, 우리는 모든 광경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매우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때로는 꿈속의 광경이 현실보다도 더 다채롭고 생생한 색깔과 선명도를 지니기도 한다. 이 심상들은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잠이 들면 뇌가 이 꿈속의 이미지들을 마치 깨어서 보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라는 가설이 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입증하지 못했다. 트랜서핑 모델은 꿈이라는 현상을 이와는 사뭇 다르게 해석한다. 잠재의식은 저 혼자서 무엇을 상상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가능태 공간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다.

임의의 대상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 눈을 감고 같은 모습을 상상 속에 떠올려보라. 아무리 뛰어난 심상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눈을 감고서는 눈을 뜨고 직접 보는 것만큼 상세하게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뇌가 만들어낸 심상이란 화질이 형편없는 사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뇌가 이 사진을 모종의 신경활동으로서 저장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신경세포의 숫자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저장된 모든 사진의 기억을 떠올리기에는 신경세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의 기억과 꿈이 신경세포 속에 ‘적혀 있는’ 것의 재생물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세포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단 말인가? 트랜서핑의 틀에서는 신경세포를 컴퓨터의 기억장치와 같은 정보저장장치로 보지 않는다. 뇌는 실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태 공간의 정보의 주소와 비슷한 무엇을 담고 있다.

아무리 해도 우리의 뇌는 한정된 양의 데이터만을 저장할 수 있다. 뇌가 완벽한 생물학적 시스템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떠올리고자 하는 모든 기억을 뇌 자체가 저장하고 있기란 불가능하다. 게다가 뇌는 꿈과 같은 완벽한 가상현실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생생한 심상을 눈을 감고 만들어내는 것이 쉬운가? 뇌가 '꺼져' 있을 때, 뇌에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심상을 더 선명하게 보는 능력이 생긴다는 설득력 없는 주장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

말했듯이, 마음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 단지 낡은 벽돌로서 새로운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을 뿐이다. 마음은 이 벽돌과, 그것을 어떻게 짜 맞추어 집을 짓는지에 관한 원시적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마음은 그 이상의 자세한 것은 종이에 적어두거나, 다른 저장매체에다 간수한다. 그 밖의 다른 정보는 모두 가동태 공간으로부터 영혼을 통해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트랜서핑 모델에서 마음이란 뭔가 좀 원시적인 시스템으로서 그 작용을 기술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이다.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마음은 어떻게든 자신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영혼의 본질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생명체의 지능에 감추어진 비밀은, 그 생명체의 마음과 영혼의 일치와 상호작용에 있다. 지금까지 인공두뇌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은 실제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식작용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영혼이 하는 것처럼 가동태 공간에 동조하여 거기서 정보를 꺼내어 오는 기계를 만드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서인지는 몰라도 마음은 가능태 공간의 원하는 섹터의 주소를 기억해내는 능력이 있다. 어떤 것을 기억해내고자 하면 마음은 영혼을 향하고, 영혼은 다시 해당 섹터의 주파수에 동조한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동조에 서툴거나, 아니면 마음이 주소를 잘 기억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마음과 영혼이 일에 의기투합을 이뤄내지 못한다. 어느 쪽이든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우리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의 영혼은 가능태 공간의 현실화되지 않은 섹터에 무작위로 동조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꿈속에서 보는 심상들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경계 밖의 공간이 마치 현실처럼 그토록 생생한 이유인 것이다. 꿈은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은 '환영'이 아니다. 마음은 꿈을 상상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져온 것과도 같은 광경을 꿈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어떤 건축물의 모습을 구석 구석 세밀히 볼 수 있었는데, 그가 그런 것을 실제로 본 적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한 경우처럼 말이다. 만일 꿈이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현실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면 생전 본 적이 없는 이런 광경들은 대체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기억하시겠지만, 가능태 공간의 섹터들은 저마다 다른 시나리오와 무대장치를 담고 있다. 무대장치는 무생물과 생물로 구성되어 있다. 꿈속에서 친척과 친구들을 만난다면 당신은 그들이 실제 삶에서와는 뭔가 다른 모습인 것을 틀림없이 발견할 것이다.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이 다를 수도 있고 성격까지 다를 수도 있다. 꿈의 공간 속의 가상 인물들은 평소보다는 뭔가 기이하고 색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당신은 꿈속에서 친구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것이 친구임을 알지만 동시

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다. 이것이 가능태 공간의 속성인 다양성이 표현되는 방식이다. 섹터마다 무대장치가 다르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사건들은 현실화된 가능태다. 꿈속에서 우리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섹터들을 더러 보게 된다.

꿈속에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아마도 불쾌감에 놀라거나 겁에 질릴 것이다.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은 현실의 거울 속 얼굴과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지만 얼굴은 변해 있다! 사실은 당신이 가있는 섹터에 따라 비치는 모습도 바뀐다. 현재의 섹터(현실화되어서 당신의 현실이 되어 있는 섹터)로부터 꿈에 보이는 가상 섹터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얼굴의 모습이 변해 보이는 정도도 달라질 것이다.

가상 섹터와 현실화된 섹터 사이의 거리에 따라 주변 광경도 그만큼 변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사는 마을을 보고 있지만 어딘가가 이상하다. 똑같은 거리와 집들이 어딘가 이상해 보인다. 당신은 마치 환상을 보고 있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당신의 영혼이 꿈속에서 현실의 섹터로부터 너무 먼 곳으로 가게 되면 당신은 자신이 전혀 낯선 환경 속에 서있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현실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 풍경과 사람들이 보인다. 그 섹터에서는 모든 것이 자신만의 가상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란 말인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비물질적이다. 당신의 역할은 당신이 대면하고 있는 가상현실이 그런 만큼이나 가상적인 역할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환상이 아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당신이라는 인물의 가능태가 그 섹터에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당신이라는

인물이 그 섹터에 존재한다면 당신은 또 다른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은 나로서는 아직 답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당신의 영
혼은 그 섹터의 시나리오에 적혀 있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꿈꾸는 사람의 눈에 거울 속의 자신의 얼굴이 남의 것처럼 보인
다는 사실은 이 가정을 뒷받침해준다.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의문이 하나 더 있다. 가능태 공간 속의 정
보가 선반에 놓여 있는 영화 필름과도 같이 정적(靜的)인 상태로 저장
되어 있는 것이라면 왜 우리는 꿈속에서 움직이는 영상을 보고, 그 가
상의 게임에 끼어들게 되는 것일까? 정보장 속에는 모든 정보가 동시
에 저장되어 존재한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
이 정보장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능태 공간을 날아다
니는 영혼의 눈에는 왜 정지된 광경이 보이지 않고 움직이는 삶의 광
경이 보이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의 인식기능은 영화 림의 움직이는
장면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것
이 가능태 공간의 본성이어서 가능태의 흐름으로서만 우리의 눈에 보
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영혼은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따라 날
면서 움직이는 광경들을 바라본다. 그렇다면 꿈속에서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시간 속으로 여행해가는 것일
까?

꿈의 공간에 관련된 모든 것은 대답보다는 의문을 더 많이 품고 있
다.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 - 꿈은 환영이 아니
라는 것이다. 어쩐지 좀 겁이 나지 않는가? 우리는 모두가 밤마다 가
능태 공간속으로 여행을 한다. 그리고 거기서 가상의 삶을 산다. 이
가상의 삶은 손에 만져지는, 그런 물질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그것은 실재다.

꿈의 해석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당신에게 좀 놀라울 것이다. 당신은 아마, 이 책이 주장하는 바에 비춰본다면 당연히 꿈은 미래의 사건의 전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지금까지 말한 바에 비춰보면, 트랜서핑에서 꿈의 내용은 1 권에서 말한 것과 같은 종류의 신호로 볼 수가 없다.

꿈은 과거나 미래의 ‘가능한’ 사건을 보여준다. 과거는 우리도 알고 있다. 가능태 공간의 미래는 너무나 다양하므로, 꿈이 장차 현실화될 섹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웃한 섹터들은 서로 유사한 시나리오와 무대장치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이 꿈속에서 본 그 섹터가 실제로 당신의 현재 인생트랙과 가까운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영혼은 다가오는 사건을 감지하는 능력을 실제로 지니고 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호는 영혼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편안한 기분을 느끼는가 하는 것이다. 깨어있을 때 영혼은 현재의 인생트랙, 혹은 다가오고 있는 가능태 흐름의 물굽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느끼는 기분상태를 보여준다. 다른 신호들 역시 ‘현실화된’ 현재의 섹터와 그 인접 섹터에 관련된 것들이다. 하지만 꿈을 꾸고 있을 때 영혼이 어디를 날아다니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영혼은 어디에든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영혼이 가져오는 정보는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음 의문은 이것이다. - 꿈이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면 꿈의 시나리오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 시나리오는 가능태 공간의 각 섹터 안에 있다. 마음이 잠자고 있을 때, 영혼은 가능태 공간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깊이 잠들어서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 마음이 잠자고 있을 때 영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현실의 삶에서는 사람의 행동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마음이 꿈을 지켜보고 있을 때는 그는 수동적 관찰자의 역할을 한다. 그는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 단지 모든 것이 평소와 같다고 생각한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특정 섹터에 있는 시나리오에 따라 일어난다. 영혼이 그 섹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섹터의 사건들은 당신의 영혼과 마음이 실제 삶에서 쌓아온 기대와 두려움과 생각에 따라 전개되기 시작한다. 기대와 두려움은 즉시 현실화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말썽을 피울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말썽에 휘말리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 뭔가가 당신을 뒤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얼핏 스쳐가기만 해도 꿈속에서는 당장 괴물이 당신을 쫓아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가능태가 마음속을 스쳐갈 때마다 영혼이 즉시 그에 동조하기 때문이다. 영혼은 당신의 생각과 기대에 어울리는 가능태 시나리오를 선택한다. 가능태 공간 속에서 영혼은 생각과 기대가 뇌리를 스침과 동시에 움직인다. 사실 생각과 기대야말로 영화 필름이 돌아가게 하는 구동력이다. 뇌의 작용을 멈출 수 있다면 보이는 심상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생각은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간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평소의 생각과 모순될 수도 있다. 이것은 꿈속에서는 마음의 통제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꿈속에서는 온갖 희한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물리학의 법칙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 자각몽에서도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난다. 결국 마음은 그것이 단지 판타지일 뿐이어서 터무니없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제 당신은 꿈속에서는 왜 모든 것이 가능한지를 알게 됐다. 꿈이

란 영혼이 가능태 공간 속을 여행하는 것이다. 가능태 공간 속에는 온갖 시나리오가 다 있다. 자각몽 속에서 꿈의 시나리오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유도 이것이다. 시나리오 자체가 실제로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수시로 시나리오를 마음대로 골라잡는 것이다. 당신이 스토커와 역할을 뒤집기로 마음먹는 즉시, 영혼은 역할이 바뀐 시나리오가 있는 섹터로 옮겨간다.

일어나는 일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마음은 욕망을, 예컨대 날고 싶다는 욕망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생각이 마음속을 스치면 그것은 영혼의 의도로 바뀐다. 의도는 꿈꾸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시나리오가 있는 섹터로 옮겨가게 하는 힘이다.

영혼이 가능태 공간 속을 여행할 때는 물질의 불활성이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꿈의 유연한 성질은 바로 이 때문이어서, 정반대의 시나리오도 즉시 실현된다. 그러면 실제 삶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본적으로는 같다. 유일한 차이는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는 속도 뿐이다. 현실 속의 사건도 꿈속의 사건과 동일한 법칙을 따라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은 번개처럼 빨리 일어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가능태가 물질차원에 실현되는 데에는 불활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인생도 꿈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그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생각이 삶의 사건들을 형성시키는 이치는 이미 설명했다.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을 당신은 조만간에 얻게 될 것이다.

생각은 어떤 특정한 인생트랙의 주파수로 방사되고 있는 데 지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물질적 요인들로 인해서 이 인생트랙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체된다. 현실화되지 않은 섹터를 물에 비유하자면 현실화된 가능태 공간의 섹터는 타르처럼 끈적끈적하다. 잠재된 가능태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꿈에서는 불활성이라는 장애물이 없으므로 섹터를 옮겨 다니는 것이 즉석에서 실현된다.

이쯤이면 당신도 내가 왜 꿈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는지를 알았을 것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려면 생각이 우리를 한 섹터로부터 다른 섹터로 데려다 놓는 이치와, 욕망이 반드시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의문을 파헤치려면 자각몽을 꼭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골라잡을 수 있는 능력이다. 꿈속에서 깨어있기보다는 현실속에서 깨어있기를 터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게다가, 말했듯이 자각몽 훈련에는 약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자각몽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위험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자신이 면도날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일 게다. 자각몽으로부터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영혼이 현실화되지 않은 섹터를 날아다니고 있을 때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 하지만 만일 현실화된 섹터에 우연히 들어서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가? 한 가지 가설은, 당신이 그 섹터에서 물질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판타지는 해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가정에는 함정이 있다. 만일 그것이 현실이라면 어떻겠는가?

아실지 모르지만, 꿈의 기술을 완전히 터득한 고대의 마법사들은 의도적으로 다른 세계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육신 역시 이 세계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그 고대의 마법사들은 자신이 하는 짓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너무 무모했다. 오늘날에도 해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들은 그저 없어진다.

외계인이 납치해간다는 주장도 있다. 더 이상은 나도 확실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들은 꿈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사실 영혼은 무의식 상태에서도 현실화된 다른 섹터로 날아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자각몽은 더욱 위험하다. 마음이 경계심을 잃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육신을 남겨두고 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사람들은 당신이 그저 잠자는 중에 죽었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다만 꿈은 환영이 아니라는 점만 명심하라. 자각몽을 꿀 때,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사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니면 그저 다른 세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탐사할 수도 있다. 현실화되지 않은 가상의 섹터를 날아다니는 한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 위험한 것은 이것이다. - 당신의 영혼이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섹터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마음은 가상의 현실이 물질현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리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우주 속의 유일한 세계라는 무지에는 빠지지 말라. 가능태 공간은 무한하고, 물론 거기에는 온갖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현실화되어 있는 섹터가 얼마든지 있다.

당신이 가게 된 세계는 우리 세계에 비하면 낙원과 같은 곳일 수도 있지만 또 살아서 가는 지옥과 같은 곳일 수도 있다. 그곳의 위치도 알 수 없다. 그것은 지구에서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일지도 모르고 당신이 마시던 커피 속일지도 모른다. 그 세계는 매우 먼 곳일 수도 있고, 아주 가깝지만 다른 차원의 곳일 수도 있다. 1권의 1장에서 말했듯이, 당신의 눈앞에는 무한공간이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다. 그 병준

우주가 먼 곳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것은 상관없다. 그 속에서는 길을 잃고 헤매기가 십상이라서, 돌아온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아스트럴체(감정과 욕망으로 이루어진 미묘한 신체(靈體), 육신을 남겨두고 이 신체만 가지고 물질계를 마음대로 여행하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 있다고 함. 역주)로 물질계를 여행하는 문제는 여기서 논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메커니즘이 작용하며, 트랜서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게다가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꿈은 트랜서핑과 간접적으로만 관계된다. 우리가 할 일은 냉혹한 현실로부터 꿈의 세계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 현실을 더 편안하고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꿈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자각몽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의 영혼이 불편한 기분을 느낀다면 자각몽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육감은 당신에게 위험을 경고해준다. 마음보다 영혼이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더 잘 알아차린다. 이 때문에 마음이 끼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꾸는 꿈이 훨씬 더 안전하다. 하지만 어쨌든 자각몽을 해보기로 했다면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라. 무리한 짓을 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들을 최대한 깨어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현실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집에 온 것처럼 편안히 머물되 자신이 단지 손님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다음호에 계속) 

- 이 글은 '리얼리티 트랜서핑 II'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바딤 젤란드(Vadim Zeland)** | 舊소련의 양자물리학자였고, 이후에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기도 했다. 다중우주 이론을 기반으로 현실변환 기법을 설명한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로 단숨에 러시아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본 시리즈의 번역 출간이 진행되고 있으나, 유명세를 원하지 않는 탓에 저자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

의 없다. 책에 소개된 개념들이 신비주의 교의들과도 통하는 바가 있어 '현대의 신비가'로 여겨지기도 한다.

역자 | **박인수** | 서울대학교에서 독일어를 전공한 후 러시아로 건너가 국제학교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쳤다. 대학초년 시절 입사체험을 하면서 의식의 빛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마음공부에 입문했다. 마인드컨트롤을 시작으로 20년간 TM-스딕코스, 은비학, 기공, 참선, 아바타코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거치면서 명상학습법 개발과 영적 치유에 열정을 쏟아왔으며, 앞으로 트랜서핑 실천기법을 연구하고 전하려는 의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잉글리시 마인드 트레이닝》, 《한국어 꺼라 영어가 커진다》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치유-아름다운 모험》, 《오라소마 프랙티스북》 등이 있다. 또한 미내시클럽 '지금여기' 번역위원이기도하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리얼리티 트랜서핑(2)

-성공의 물결로 갈아타는 선택의 비밀

저자 바딤 젤란드 저 | 박인수 역 | 정신세계사 | 11,000원



인생의 행복에 관해 이야기하는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전3권).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는 더 많은 행복과 풍요로 넘실대는 파도를 골라 그 위로 옮겨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각 개인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인생의 시나리오를 실현시켜줄 파도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다.

트랜서핑은 특별한 자기개발 기법이 아니다.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다.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그저 얻는 방법이라고 서문에서 강조한다. 특히 책 전체에 걸쳐 억지로 애쓰지말고 그저 선택하라고, 그 기쁨을 마음껏 즐기라고 조언한다.

제1편 <러시아 물리학자의 시크릿 노트>에서는 부와 성공의 수수께끼를 분석하였다. 왜 원하는 미래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가?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였다. 트랜서핑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한 다음, 삶의 문제를 제거하고 인생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 실패를 줄이는 방법, 발명과 창조 의 길 등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